

LG정보통신 차량 TRS 단말기 개발

삼성전자 32비트 마이컴 칩 개발

광덕특수지 온도따라 색깔변화 종이 개발

차량 TRS 단말기 개발

LG정보통신이 택시 택배 등 운송업계의 자가 통신망 구축에 쓰이는 「차량형 TRS(주파수공용 통신) 단말기」를 개발했다.

차량전용인 3백80MHz 대역의 TRS 단말기인 이 제품(이름:STAREX-TRS)은 전면부와 본체부를 분리할 수 있어본체부를 차량 트렁크에 넣을 수 있으며 송신출력이 25W로 휴대형 TRS(3W)보다 훨씬 높다.

일반 전화망과도 연결해 통화할 수 있는 이 제품은 통화 우선순위 부여 및 비상호출 기능, 위성을 이용해 차량위치를 파악하는 GPS(위성위치 측정시스템) 기능, 데이터통신 기능, 10개 전화 번호 저장 및 단축다이얼 기능, 대형 액정을 통한 상황표시 기능이 있다.

32비트 마이컴 칩 개발

삼성전자가 레이저프린터에 장착돼, 데이터 인쇄과정을 제어하는 핵심칩인 「레이저프린터용 32비트 마이컴」을 개발했다.

삼성전자가 12억원을 들여 개발한 이 제품은 8PPM(분당 8페이지 인쇄)급 레이저프린터에 쓰이는 소형컴퓨터 형태의 칩으로 고속인쇄에 쓰이는 그래픽 기능기능칩 2개를 한 개의 칩으로

만들어 탑재, 가격이 기존제품보다 20% 저렴하다. 또 컴퓨터 명령어들을 최대한 단순화하는 설계기술인 명령축약형 컴퓨터방식으로 설계됐다.

삼성전차는 이 제품을 하반기부터 월5만개 규모로 생산, 국내외 프린터업체에 공급할 계획인데, 연간 수입대체효과가 80억원으로 예상된다.

온도따라 색깔변화 종이 개발

무공해 방습지 박리지 등 특수지 전문제조업체인 광덕특수지(대표 李杰九)가 온도 변화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感溫性色紙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.

감온성 색지는 온도 변화를 스스로 느끼는 특수기능성 종지로 입김을 불어 넣거나 손으로 만지면 그 부분만 색상이 변했다가 15~30초 이내에 다시 원래 색으로 되돌아 오는 특성을 갖고 있다.

국내에서는 그동안 고가의 이 제품을 미국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해 사용했으나 광덕특수지가 1년여만에 저렴한 가격으로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.

이 회사는 시화공장에 연간 6백톤 규모의 양산 체제를 갖췄으며 국내 판매 및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. **발특9605**